

추석 특수 잡자... 2금융권, 특판·이벤트 풍성

신용카드사 해외여행객 정조준 선물세트 할인 등 서비스도 강화 저축은행, 예금·파킹통장 금리인상 명절에 오고간 뭉치돈 확보 나서

한가위 '특수'를 노리는 2금융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 이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존 고객의 충성도 제고는 물론 신규고객 유치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명절을 앞두고 고객 확보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제휴를 통해 쇼핑, 여행 부문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 조달에 힘쓰고 있다.

◆ 신용카드사 쇼핑·해외여행 공략

신용카드사는 선물세트 할인 및 해외여행에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존 고객의 충성도 확보와 신규고객 유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

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명절은 소비자들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경쟁사 대비 행사의 질이 떨어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부터 편의점 등 생활영역 내 폭넓은 제휴가 돋보인다.

신한카드는 해외여행객을 정조준했다. '더라운지' 앱을 통해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 세계 1200여개의 라운지를 30% 할인한다. 이어 해외이용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한다. 최소 결제금액 또한 5000원으로 실적 문턱을 낮췄다. 캐시백은 다음해 1월 일괄 지급한다.

삼성카드는 선물세트 할인을 선보인다. 최대 50%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40%, 50%를 할인한다.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포섭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GS수퍼마켓 ▲GS더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며 금액별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자사 앱에 구축한 '뽕샵'에 추석 기획전을 열었다. 식품·생활&주방·뷰티·가전 행사상품의 10%를 즉시 할인한다.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최대 40% 즉시 할인 및 상품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준다. 해당 카드사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인상

저축은행은 한가위에 발맞춰 예금·파킹통장 금리를 인상했다.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명절 간 오가는 '뭉치돈'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명절 예치는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세대에게 용돈을 받는 중장년층 및 대학생들의 예치 비중이 높아져서다.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차주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자사 예금 상품의 금리를 0.4%포인트(p) 일괄 인

상했다.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4.2% 적용한다.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정기예금'이다. 연 4.0%로 책정했다.

같은 날 DB저축은행은 모바일전용 상품인 'M-드림빅(Dream Big) 파킹통장' 금리를 연 4.0%로 조정했다. 별도의 우대조건은 없지만 예치 금액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5000만원까지는 연 4%를 유지하며 5001만원~10억원까지는 연 1.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은 연 0.5%의 금리를 준다.

JT저축은행의 '회전식정기예금' 또한 눈여겨 볼 만 하다. 지난달 0.2%p를 올리면서 연 4.5% 금리를 적용했다. 회전식정기예금은 만기가 6개월이다. '에테크족(예금 채테크족)' 사이에서는 '짧고 굵게' 자금을 운용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소규모로 마케팅 하는 만큼 자사의 혜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NH농협카드 X 여행에미치다 협업 영상 장면.

NH농협카드 여행에미치다와 협업 고향 소개 영상 공개

NH농협카드가 협업을 통해 농어촌 여행을 홍보한다.

◆ '여행에미치다'와 협업

NH농협카드는 여행에미치다와 함께 '마음의 고향 키우기 프로젝트 지금(zgm).고향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국 각지의 고향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통영, 남원 등 전국 7곳 지역을 '마음의 고향'으로 선정했다. 각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의 사연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일주일에 1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스포티비 나우와 제휴 신상품 출시·이벤트

신한카드가 스포티비 나우와 맞손을 잡고 신상품을 출시했다.

◆ 디지털 구독료 월 2만원 할인

신한카드는 '스포티비 나우 신한카드 구독 좋아요'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휴 카드는 스포티비를 포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전자책 등 총 16곳 구독 업체의 이용금액을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최대 2만원까지다.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정기성 결제에 대해서도 월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한다. 아울러 편의점에서는 월 최대 4000원 할인을 탑재했다.

출시기념 행사도 준비했다. 스포티비 카드로 24만원 이상 이용하면 프리미엄 이용권(1년)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전국 센터 어르신들에 반려나무·후원물품

KB국민카드가 명절을 앞두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전국 28곳 센터소속 독거노인 후원

KB국민카드는 독거노인지원센터 소속 어르신들 400여명에게 반려나무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영업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한달간 직접 양육한 반려나무와 '감사 메시지 카드'를 식료품 키트와 함께 지역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취약 어르신 대상 후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전국 지역사회 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정산 기자

경남銀 횡령사고 손실액 2988억 vs 490억... 진실은?

경남은행 "돌려막기 한 금액 합산, 실손실은 490억... 300억 회수 전망"

금융감독원의 BNK경남은행 횡령 금액(2988억원)과 경남은행이 산출한 순손실액(490억원) 간 차이가 6배에 달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를 발표하며 경남은행 PF대출 직원 A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산출했다. 당초 알려졌던 금액인 138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허위대출에 따른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위조를 통한 횡령액이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검사와 산출된 2988억원이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해 '돌려막기'한 금액을 단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사 전경. /경남은행

순히 합산한 것이며, 실제 순손실은 595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95억원 역시 이미 대손처리된 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을 포함해 당초 발표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을

뿐, 추가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횡령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순손실 및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어 이번 규모 변동이 경남은행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 이번 횡령 사고에 따른 손실금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공개한 재무제표에 정정 반영했다. 올해 초 경남은행이 공개했던 지난해 순이익은 2790억원이었으나, 손실액 490억원을 반영해 순이익은 2300억원으로 정정됐다.

또한 우발채무와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손실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실적에도 105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손실 처리했다. 손실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613억원이다.

동 점포를 운영한다.

은행권이 명절 이동점포 운영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 설날 이후 3년 만이다. 추석의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은행권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이동점포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동에 전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실시하면서 은행권 역시 유동인구가 몰리는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점포를 일시 중단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사실상 코로나 종료가 되면서 오랜만에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를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고로 발생한 실적 손실 중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금 및 귀금속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 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해 둔 상태며, 경남은행 측도 A씨의 가족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경남은행 측은 해당 회수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회수액은 전망치인 3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횡령 회수율은 통상 10% 미만이지만 이번 횡령 사고의 회수율은 60% 이상이 예상된다"며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시중은행 명절 이동점포 4년만에 재가동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주요 거점공항에도 탄력점포 운영

시중은행들이 4년 만에 명절 이동점포 재가동에 나서면서 '신권'을 교환하는 추석 풍경을 오랜만에 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식 점포를 설치한다. 4년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KB 찾아가는 Branch'(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과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 '뱅크드'를 설치한다.

같은 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 방향)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농협은행은 오는 27~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성남유동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이

다시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주요 거점 공항에 있는 은행별 탄력 점포 역시 정상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천·김포·청주국제공항에서 환전소와 출장소를 탄력점포 형태로 정상 운영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전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하나은행도 역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환전소 운영시간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